

학교졸업 후 기간 경과별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이번 호에서는 학교졸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음.
 - 여성은 취업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므로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
- <표 1>을 보면 최종 학교졸업 후 0년(정확히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성들의 취업률은 51%로 약 절반 정도는 취업, 절반 정도는 미취업상태에 있음.
 -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미취업률(졸업 후 2년 경과한 사람들 중 미취업자 비중)은 여전히 약 20% 정도

<표 1>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졸업 후 기간(년)	취업	미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직장 그만둔지 1년 이내	직장 그만둔지 1년 초과	직장 경험 없음	
0	51.0	11.0	11.7	26.3	100.0
1	72.6	11.7	7.3	8.3	100.0
2	79.3	6.9	8.5	5.4	100.0
3	83.0	7.0	7.5	2.5	100.0
4	85.0	6.1	6.6	2.4	100.0
5	84.8	8.2	6.0	1.1	100.0
6	88.1	6.0	5.3	0.7	100.0
7	89.7	5.8	4.3	0.3	100.0
8	88.4	5.7	5.0	0.9	100.0
9	87.7	7.2	4.7	0.4	100.0

주 : 1) 2008~2010년 평균값. 정확히는 2008년 6월, 2009년 6월, 2010년 6월 자료를 평균하여 계산. 이로 인해 졸업 후 기간 0년이란 각 연도의 2월 졸업자가 대상이 됨. 조사시점은 6월이므로 졸업 후 4개월째 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됨. 졸업 후 기간 1년은 전년도 2월 및 8월 졸업자가 대상이 됨. 즉, 졸업 후 1년 4개월 또는 10개월의 의미가 됨. 졸업월은 조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졸업 후 개월 수는 알 수 없음.

2) 각 연도 35세 이하인 자료 분석대상을 제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표 1>의 주를 참고.

<표 2> 학력별 졸업 후 기간 경과별 미취업률 변화

(단위 : %)

졸업 후 기간	고졸	전문대졸	대졸(대학원 이상 제외)
0		36.9	44.1
1		24.2	25.1
2		21.1	19.8
3		14.6	16.1
4	49.0	15.5	12.4
5	23.6	11.7	15.7
6	22.9	10.9	10.5
7	21.1	8.5	7.8
8	24.4	11.9	6.5
9	17.1	14.2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미취업률이 안정적으로 15%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무려 약 6년의 시간이 걸림.
 - 9년이 경과해도 약 12% 정도의 미취업률을 보이고, 5.1%는 직장을 그만둔지 1년 이 넘었거나 직장 경험이 아예 없는 장기 미취업상태에 빠져 있었음.
 -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장기 미취업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졸업 후 4년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약 60%를 차지(=(6.6+2.4)/(6.1+6.6+2.4)). 5년이 지나야 이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
- 학력별로 보면, 졸업 직후(약 4개월 경과 시점)에는 전문대졸의 미취업률이 4년째 대졸보다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졸과 비슷하거나 또는 대졸의 미취업률이 더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전문대졸이 대졸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세간의 분석은 단지 단기에만 맞음을 알 수 있음.
-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를 가야하므로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고하였는데, 전문대졸이나 대졸보다 월등히 높은 미취업률을 보임.
- <표 3>은 이들 미취업자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졸업한지 2년 이내에서는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졸업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수록 무언가를 배우거나 준비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그냥 쉬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짐.
- 이를테면 졸업한지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취업준비>취업을 위한 학원 등 통학>구직활동 순이었으나, 졸업한지 9년이 경과하면 구직활동>쉬었음>취업을 위한 학원 등 통학의 순으로 변화

〈표 3〉 졸업 후 기간경과별 미취업자의 활동상태

(단위 : %)

졸업 후 기간	0	1	2	3	4	5	6	7	8	9
구직활동	16.1	22.4	18.8	21.5	24.0	34.1	25.8	30.1	35.9	41.0
발령대기	1.2	0.0	0.0	0.5	1.8	0.5	0.0	0.0	0.6	0.0
육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가사	0.1	0.0	0.3	0.0	0.7	0.3	1.4	0.0	0.0	2.4
입시학원 통학	22.9	9.5	2.1	0.4	3.3	0.0	0.5	0.0	0.0	0.0
취업 위한 학원/기관 통학	11.7	14.5	20.0	17.1	13.8	15.4	16.0	5.5	11.2	9.2
취업준비	20.5	28.4	37.9	28.8	28.7	25.8	23.8	20.1	18.5	7.0
진학준비	13.1	7.7	6.3	6.1	1.6	3.0	3.0	3.3	2.1	0.0
심신장애	1.2	1.6	3.1	3.0	3.9	3.5	2.1	3.2	5.1	6.2
군입대 대기	3.3	3.3	1.1	0.8	1.1	0.0	0.0	0.0	0.0	0.0
쉬었음	7.9	10.5	8.5	21.1	20.5	15.7	24.9	33.2	25.9	31.2
기타	2.0	2.2	1.5	0.7	0.6	1.8	2.6	4.6	0.9	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 졸업 후 기간별 미취업자의 미혼율

(단위 : %)

졸업 후 기간	0	1	2	3	4	5	6	7	8	9
비경활+실업	98.6	97.5	97.9	97.5	93.7	93.4	89.2	82.4	87.9	84.4
취업	91.0	86.5	80.3	76.4	64.2	59.9	50.7	47.6	42.5	4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기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부모가 되는 성인기 이행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시기임을 감안해 졸업 후 기간별 미취업자의 혼인 여부를 분석
 - 졸업 후 1년 시점에서 취업자인 사람의 미혼율은 86.5%, 미취업자의 미혼율은 97.5%로 차이가 11%p였으나, 졸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취업상태에 빠진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미혼율 차이는 급격히 확대되어 졸업 후 9년이 경과한 사람들 중 미취업상태에 빠진 사람의 미혼율은 84.4%,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미혼율은 40.3%로 무려 두 배 이상 격차 발생
 - 취업 여부가 지금 당장의 소득뿐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도 늦춰 이후 인생 경로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졸업 후 기간이 경과해도 미취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며, 졸업 초기의 미취업자들은 알아서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만 졸업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미

취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취업노력 면에서 적극성 감소

- 미취업은 새로운 가정의 형성도 늦춰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효과까지 발생시키므로 이들 미취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취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요성 확인 **KLI**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